2009365152

제 1 부 미묘해진 언어들

중심의 옹호—최근 문학위기론과 관련하여
문예지 유감—탁월함에 대한 무관심
미묘해진 언어들—현대시와 퇴폐
소설의 비인간화 I —징후로서의 최인훈 소설
소설의 비인간화 II —최근 젊은 작가들의 소설에 대하여

제 2 부 미로 속의 패스파인더

문학의 효용—김남일의 <일과 밥과 자유>
미로 속의 패스파인더—김영하 소설을 위한 여덟 개의 주석
불행의 현상학—한수영의 <그녀의 나무 핑궈리>
싸늘한 삶의 절연 속 생의 고단한 균형—조경란의 <국자 이야기>
상처받은 마음은 고독한 사냥꾼—박형서의 <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>
남자는 없다—전경린론
우연의 현상학, 진실의 의미론—하성란론
거울아, 거울아—김영하론

제 3 부 복음, 그 이후

무관성의 사회심리학—하재연의 시
용해의 상상력과 응고의 상상력—유홍준의 <나는 웃는다>·조말선의 <둥근 발작>
자학과 가학, 그 사랑의 교대함수—정다운의 시
시의 마음 I —황인숙의「권태」·이영광의「중독」
시의 마음 II —여덟 편의 시 읽기
시의 미래—이원의「나이키」·천양희의「갈울공원」
복음과 시—허만하의「한 그루 겨울나무를 위한 에튀드」·정현종의「찬미 귀뚜라미」·김언희의「자술 11-1」
시와
보법—최영철의「해바라기」·이경림의「개미」·이수명의「보법」·김행숙의「착한 개」
영감으로서의 시—박정만론
방법적 착란의 언어들—함기석의 시